

#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9억달러 상회

LG상사·LG건설, 오만 PP 플랜트 공동수주 ... 고유가로 오일머니 증가

2004년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가 중동, 아시아 지역의 발전 및 담수화 설비부문 증가의 영향으로 2003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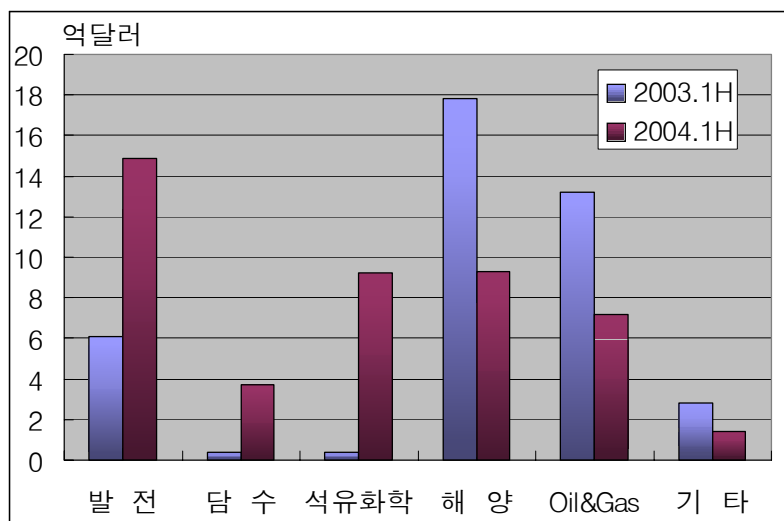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1-6월 해외플랜트 수주는 45억7000만달러로 2003년 1-6월 40억7000만달러보다 12.2% 증가했다.

2001년 이후 감소해 오던 해외수주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7월 이후에도 수주실적은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예멘 Hadramount 소재 정유공장(2억1000만달러) 수주와 LG상사와 LG건설의 오만 Polypropylene 공장(1억8000만달러) 공동수주 등으로 2003년보다 8억8000만달러 늘어난 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양설비 및 석유·가스개발 분야는 모두 40%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또 발전 분야가 4억2000만달러의 사우디 열병합발전소와 인디아 석탄화력발전소 기자재 수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담수화설비 분야는 2003년 부진에서 벗어나 900% 성장한 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유가로 각국 정부 재정이 확대된 중동 지역의 발주물량이 2003년보다 85% 증가했고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도 인디아, 타이, 타이완 등을 중심으로 150% 증가했다.

반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은 해

양설비 분야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3%, 54% 감소했다.

산자부는 하반기에도 중공업계, 건설업계, 종합상사 등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60억달러대의 수주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위해 10월부터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지역 주요 발주처 인사를 대거 초청해 수주 상담회를 갖는 한편, 두바이 무역관 <중동·아프리카 입찰 지원센터>를 통해 중동 지역 사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5>